

濟州島の生水說話와 물법신앙

문 무 병*

목 차

- I. 神話에 나타난 물
- II. 風水說話와 물혈
- III. 濟州島の 新興宗教—찬물교
- IV. 마무리

人間的 生存條件에서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自然일 것이다. 때문에 記錄이나 口傳에 의하면,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돌아 다니다가,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을 設村하고, 물이 없는 곳이면 물통을 파서 그곳에 최소한의 生活조건을 具備한 후, 定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당본풀이(堂神話)나 고종달이형 風水說話에서 흔히 살필 수 있다. 그러나 神話나 傳說, 民間信仰과 굿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살펴 나가면, 삶 의 조건에 절실하게 필요한 물은 단순히 生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료수이기도 하지만, 天地를 創造한 根源的인 물로서의 源水, 不淨을 씻어내는 淨化水, 병을 고치는 藥水라는 물의 神聖性을 바탕으로 하는 '原初的인 물', '創造의 源水'로서 물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특히 고종달이형 風水說話는 外地에서 濟州島를 定跡하기 위하여 찾아 온

*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術士가 地理書를 펼쳐 漢擎山의 '물혈'을 떠서 막아, 인물이 나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섬을 植民化하려는 中國이나 高麗의 侵略史를 外勢(=고종달이)와 土着勢(=廣壤堂神)의 싸움으로 說話化하여 보여주는 口傳의 歷史이기도 하며, '땅 가르고 물 가르는' 모티브를 지닌 堂神話는 물이 마을의 設村과 分里를 해명해 주는 마을의 歷史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은 마을을 건설하여 定着生活을 하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가축을 먹이는 데도 긴요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이 서로 분쟁하고 경계를 나누는 '굽 가르는(경계를 구분하는)물'로서 냇물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정화하는 '創造의 原水'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濟州島의 生水說話의 분석과 오늘날 본도에서부터 비롯한 '물법신앙'의 종교인 봉남교 계통의 찬물교의 교리 등을 통하여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民間信仰 속에 차지하고 있는 물은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I. 神話에 나타난 물

1. '굽'가르는 물 ① -天地分離型

큰곳을 할 때, 초감제의 맨 처음에 하는 <베포도업> 祭次에는 天地創造神話가 나온다. 이 神話를 보면,

태초에 천지는 혼돈으로 있었다. 하늘과 땅이 금이 없이 맞붙고, 암흑과 혼합으로 뭉쳐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혼돈의 천지에 개벽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의 머리가 子方으로 열리고,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땅의 머리가 축방으로 열려 하늘과 땅 사이는 금이 생겼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덩어리에는 산이 솟아 오르고 물이 흘러내리고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

1) '굽'은 '굽갈르다', 즉 '한계를 가르다'에서 처럼 '경계' '구분'의 뜻이다.

져 갔다. 이때,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되어 음양상통으로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²⁾

태초에 天地混合에서 하늘과 땅이 금이 가고 나뉘어져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내리고 중앙에 황이슬이 내려 합수되어 시루떡 같은 宇宙가 천지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물에 의한 宇宙開關說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자신의 대응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原質生成論 즉 인류가 물에서 태어났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

청이슬 흑이슬이 흘러서 하늘과 땅은 분리되었으니, 물은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混合에서 分離로, 우주개벽 천지창조의 “굽 가르는 물(境界를 가르는 물)’인 것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움직이는 물’은 垂直的 移動에 의한 層位의 구분으로서의 우주의 창조를 실행하는 것이다. 태초에 천지혼합의 혼돈으로부터 물은 끊임없이 수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천지를 분리하고 우주를 창조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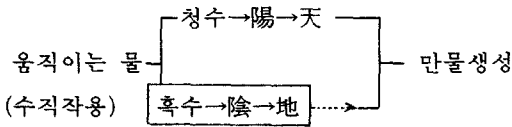
天地混合이란 宇宙가 창조되기 以前의 혼돈을 뜻하기도 하지만, ‘싸움’, ‘갈등’, ‘난장판’을 뜻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정신이 혼미할 때나, 상황 판단이 잘 서지 않는 迷宮, 병을 얻어 육신이 뒤엉켜 병의 원인을 캐내지 못하는 상태, 서로 얽켜 뒤죽 박죽이 된 싸움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지 못한 그야말로 ‘깜깜한 상태’를 天地混合의 난장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病·戰爭·狂症·不淨·邪·煞 등의 俗世의 混亂이 굿을 통하여 질서의 세계로 청정하게 평정된다면, 이때의 물은 混沌에서 秩序로 “굽 가르는 물(질서를 구분하는 물)”인 것이다. 굿의 초감체에 天地混合에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인간이 태어나고, 해와 달이 탄생하여 宇宙의 秩序가 잡혀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사회의 혼돈, 즉 葛藤이나 疾病을 和解하고 조정하여 새로운 질서의 세계, 聖의 세계로 환원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宇宙創造에 先在하는 原質로서의 混沌의 상정은 인류의 근원적이고 普遍的인 觀念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것은 無秩序나 混沌이 아니라 그것

2) 현용준, 《제주도 神話》, 서문문고

3) M. Eliade(이은봉역), 《聖과 俗》, 학민사, 1983, p.100.

없이는 우주와 만물의 생성을 기대할 수 없는 原動力, 즉 陰과 陽, 天과 地, 男과 女, 人間과 動物, 惡과 善, 聖과 俗, 文化와 自然등의 兩屬性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인 原初의 합일체, 완전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⁴⁾ 따라서 물은 可能性의 우주적인 총계를 상징한다. 그것은 일체의 존재가능성의 源泉이며, 저장고이다. 그것은 모든 형태에 선행하며, 모든 창조를 뒷받침한다.⁵⁾ 天地混合에서부터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합수되어 陰陽相通으로 만물이 생성” 되었다는 것은 물이 陰陽의 상통과 天地의 분리, 그리고 萬物을 형성시키는 ‘창조의 原動力’으로 작용하였다는 말이다. 물에 의한 天地分離型 神話 속에는 陰陽 兩極의 對立을 합수하여 和解·調整하고 구분하여 질서를 잡는 ‘굽 가르는 물(二氣兩能의 물)’로서 제주 사람들이 神聖視하는 ‘創造의 源水’, ‘原初의 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原初의 물>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물이 생명의 원천, 創造의 母胎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2. 굽 가르는 물 ②-村落分離型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은 보통 河川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다.

당본풀이를 보면, 濟州島의 마을 設村은 떠돌아 다니던 狩獵生活에서 農耕 定居生活로 바뀌는 과정과 狩獵生活을 하던 男神과 農耕神인 女神이 결혼하여 狩獵과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살아 온 역사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夫婦神이 서로 다투어 살림을 分散하게 되면, 본풀이에는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자”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마을의 분리를 뜻하며, 마을이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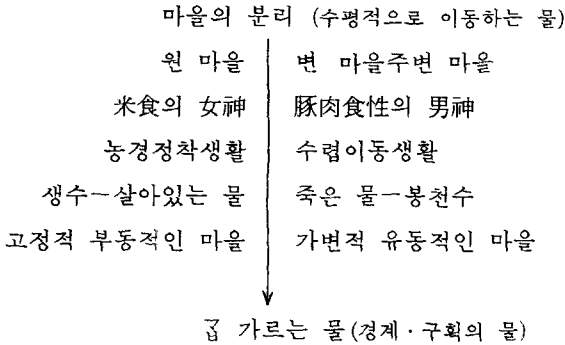
4) 王彬, 《神話學入門》, 금란출판사, 1980. pp.77~78.

5) M.Eliade(이은봉역), 《聖과 俗》, 학민사, 1983, p.100.

6) 王彬, 앞의 책, p.81.

갈등하고 분리될 때는 반드시 땅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이때 물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물, 村落分離型의 물이며,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이고 食水이며, 신들에게는 버릇물 세숫물이다. 이 물은 땅에서 솟아난 生水와 하늘에서 내려 고인 봉천수, 살아있는 물과 죽은 물로 나뉘고, 신들의 淨/不淨, 優/劣에 따라 생수와 봉천수를 나누어 각각 마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차지한 마을은 원래의 마을로 농경정착생활의 안정된 마을을 이루지만, '죽은 물', 즉 봉천수만이 있는 주변 마을은 수렵하는 유동 인구를 가진 가변적인 마을이다.



마을은 농사지를 땅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기본 조건이므로 당본 풀이에 나오는 堂神은 마을을 設村한 祖上이며, 그들은 생활의 입지조건으로 우선 땅과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을 설촌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설촌 조상들의 結婚은 定着生活의 기본조건, 즉 家族이라는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려면, 우선 一年之計莫如種穀이란 말이 있듯이 농사를 위주로 하는 計劃經濟와 定着生活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리 하여 마을은 형성되지만, 수렵을 하던 男神과 농업을 주장하는 女神의 갈등은 마침내 '결혼의 파탄'을 초래하고, 그 결과는 '살림의 분산'으로 나타나며, 당본풀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살림의 분산' 모티브는 원래의 마을과 원 마을에서 분리되어 나간 주변 마을과의 신앙의 대립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땅 가르고 물 갈라” 마을이 분리될 때, 마을을 가르는 물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물로, 물 자체가 마을의 境界線이 되기도 하고, 물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分離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은 마을과 마을을 수평적으로 ‘굽 가르는 물’이며, ‘境界 또는 區劃의 물’인 것이다.

3. 不淨을 씻어내는 물 - 새드림

초감제에서 굿의 祭場을 淨化하는 儀禮로 <새드림>이 있다. 이 祭次에서 보면, 물은 ‘生命의 源水’이며, ‘淨化의 물’이다.

신이 오시려 하시는데, 십리 안 십리 바깥, 오리 안 오리 바깥, 방안 구석, 신의 아이 본주지관, 제물제향에 不淨이 많으니, 부정 서정이랑 연찰물로 신가지저(씻고자) 하시는데, 하늘로 내린 물은 궁녀 시녀 발 씻은 물, 산으로 내린 물은 남썸돌굽 썩은 물, 시내방천 산샘의 물은 牛馬 개짐승 발 씻은 물이라. 이 물 저 물 다 버려두고 동해바다 은하봉천수 입이 넓은 차대접 가득히 떠다가 일만팔천 神殿님 연찰물로 둘러매자. 이 물로 부정 서정 신가지자.”

이와 같이 물을 가지고 祭場을 정화하고, 본주(=환자)를 제장에 앉혀 환자의 몸에 깃든 邪를 쫓아내는 것이 <새드림>이다. 이때의 물은 不淨을 씻어내는 물, 治病의 淨化水인 것이다.

‘淨化의 물’은 살아 있는 물이다. 물은 변함없이 그 기능을 유지한다. 그것은 분해하고, 형태를 파괴하며, ‘죄를 씻어 보낸다.’ 그것은 정화와 재생을 동시에 행한다.⁸⁾ 살아 있는 물은 生水로서 재생의 힘을 지닌 神水다. 때문에 이러한 생수의 呪力은 부정을 씻는 洗禮儀禮에 쓰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환자를 치료하는 정화와 재생(=治病)의 힘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므로 ‘生命의 源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드림>의 물, 즉 ‘生命의 源水’는 ‘邪를 쫓는 물’이며, 환자의 병

7)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pp.53~54.

8) M.Eliade, 앞의 책, p.101.

을 고치는 물이다. 살아 있는 물, 청춘의 샘, 생명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源水信仰'은 물 안에 生命, 힘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形而上學的, 宗教的 실재를 신화적 의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마을의 設村과 風水-神들의 坐定處

마을의 境界를 이루는 領域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많고, 또 이런 河川 附近에는 마을 守護神의 常住處로써 神堂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이 있는 곳을 神聖하게 생각해 온 한국인의 보편적인 신앙관에 근거하며, 또 물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古來로 傳說池, 社稷壇, 仙人 出沒地, 祭天儀禮地, 아니면 眞水, 聖水, 祿水등 神聖의 領地로 尊崇의 표적이 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는 巫堂들이 窟터를 만들고, 別神祭, 洞祭, 城隍堂祭등도 올리고 바닷가 같으면 水陸祭, 龍神祭, 豐漁祭, 崔瑩祭, 埋香祭 같은 祭祀를 올리기도 한다.⁹⁾

마을 토주관인 本鄉堂神이 마을의 設村 祖上이거나 設村 祖上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서 '가지 갈라 온 神'이라면, 이러한 神들은 마을의 형성 조건으로 물이 있는 곳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물 있는 곳을 聖域化하고, 그곳에 神堂을 설비하고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은 '聖地의 물'이며, 신들의 坐定處가 된다. 이는 또 풍수신앙에서 말하는 생수가 있는 '물혈'이기도 하다. 당본풀이를 보면, 漢拏山神들은 坐定處를 찾기 위하여 떠돌아 다니다가 나경관(나침판)을 보면서, 未知의 땅을 찾아 내려오다가 물이 있는 곳에 오면, 벼룻물 세숫물로 쓸만하다 하여 그곳에 坐定한다. 그때부터 마을에 本鄉堂이 생기고 그곳에 자손들이 모여 단골(信仰集團)을 이루고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話素를 지닌 당본풀이의 신들은 <하락산또>라는 山神이다. 제주도의 山神은 그 기능면에서 사냥, 목축의 神, 바람의 神, 風水의 神 세 가지로 분류할 수

9) 金戊祚, 「물說話攷」, 《논문집》 제4집, 부산산업대학, 1983, p.10.

있다.¹⁰⁾ 이 때의 山神은 사냥·목축의 신이나 바람의 신이라기 보다는 坐定處—생활의 터전—를 찾아 한라산을 돌아다니던 地官(=風水神)이다. 그 이유는 나경판을 소지하고, 生水의 물혈을 찾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本郷堂神이 되며, 마을의 설촌 조상이라 할 수 있다.

土着神으로서 물혈을 찾아 마을을 설촌하고 '성스러운 물'이 있는 聖地를 마련하여 좌정하여 마을을 수호하는 風水의 神이 堂神이라는 것이다.

風水信仰이 무속에 뿌리 깊게 파급된 것은 척박한 제주 땅에 定着하려 했던 조상들이 목축이나 농경생활, 마을의 형성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사정을 실증하는 것이며, 마을의 구비조건을 갖춘 住居地를 선정하는 데 풍수사상을 적용함으로써, 地中에 흐르는 물의 生氣를 통하여 인간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며, 생활의 근거지를 보다 안락하고 화평한 聖地的 條件에 맞는 땅으로 선택하고 거기에서 물의 창조적 생산적 원리를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¹¹⁾

II. 風水說話와 물혈

濟州島에는 <고종달型 說話>가 많이 있다. 이 說話는 風水說話로 <고종달이>가 제주절섬에 들어와서 '물혈을 뜬 이야기'와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濟州島에는 水源이 마르지 않고 남아 있는 <지장샘>등의 생수가 있는 샘마다 이와 유사한 전설들이 전해 온다. 그와 동시에 고종달型 說話는 중국이나 고려의 식민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리서에 능통한 술사를 파견하여 제주의 인맥과 토지를 정탐 조사하고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얻으려는 책략이었다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설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 濟州島에서는 山神을 일컫는 말로 <하루산또> <부름웃또> <산신백관> <산신또> 등이 있으며, 본풀이를 분석하여 보면, 그 기능이 수렵의 신, 목축의 신, 바람의 신, 풍수의 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1) 김무조, 앞의 글, pp.11~12.

고종달이는 중국사람인데, 현 시대에는 그런 걸 믿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풍수지리를 중시했다 해. 중국 원나라 말때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지. 중국에다 조공을 바치고, 대국에 종으로 예속되거나 다름이 없어. 대국은 기세가 최약해 가고 우리나라는 고려말이었는데, 중국에서 고종달이란 사람을 파견시킨거라. 파견을 왜 시켰느냐. “조선에 풍수지리를 일일이 조사해서 그 가운데 중국을 이길만한 인제나 조선 민족의 생활상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면 너의 수단으로 너의 도술로 다 제압해두고 와라.” 이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오기 전에 지리상으로 본 것지만, 고종달이가 생각하고 연구한 풍수지리에 조선은 배의 형체인데 제주도는 닻의 형체라. “그러면 배라고 한 것은 항해하려고 하면 우선 닻부터 거둬야 된다. 제주도부터 먼저 탐혈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먼저 온 거지. 제주도에 와서 산증을 답사하는 중, 경주 김씨는 고려 말기 귀양을 와서 하향을 해서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그 자손이 남원면 의귀리(衣貴里)에 살면서 작은 초막사리에 가난하게 사는데, 들녘에 마분(馬糞)을 주으러 갔는지 나무를 하러 갔는지 고종달이를 만났어. 고종달이는 비밀리에 제주도 자리를 탐혈하는 차라. 보니까 상주거든.

“자네 상주가 아니냐?”

“예, 상줍니다.”

“자네, 나를 위해서 지리 인도 하던지 뭐 심부름을 하면, 묘자리를 봐 줄테니 거기 산을 쓰라.”

“잘 봐 줘서.”

그래서 ‘반디기왓’이라는 데 산을 썼어. 고종달이가 짚고 다니던 막대기 끝에 청뿔을 박았더라 해. 하루는 청뿔을 뽑아가지고 땅에다 딱 떨어서 발로 쑥 누르면서 경주 김씨보고, “여기 발로 눌러 있거라. 내가 오기 전에 이 뿔을 빼면 못 쓴다. 꼭 밟아 있어라.”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어서 밟아 있고, 고종달은 오름 위에 올라서 지리를 시찰할 때, 김씨는 들어 보지 말라고 하였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발을 들어보니까, 피가 문득 나더라 이거야. 모른척하고 눌러 두었는데, 고종달이가 들어와서 “발을 들라” 해서 발을 떼니까, “이거 발을 들지 말라고 했는데 발을 들었나.” 하니 양심상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호기심에 발을 들어 봤습니다.” 하니, 천석군은 잃어버렸다고. 만석군 할 것이면 구천석 밖에 못 하겠다는 뜻이지. 어딜 가든 비루 오른 뽕생이(망아지) 하나만 사 오라구. 사서 잘 기르면 여기가 馬穴이니까 몰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을 써 두고 보니까 제주도 인정으로써 쓰고도 남을 만한 참물 생수가 터져 그 물로써

논발을 이루면 일대 풍부한 섬이 되어버릴 것 같으니, 우선 이것부터 감춰 시켜 물혈을 빼어 물이 나지않게 기술을 부리기 시작했지. 그랬는데 홍로(西烘里) <지장샘>의 물을 뜰려고 하는데, <지장샘>의 물귀신, 水神이 먼저 알아서 도망을 했다고 해. 도망을 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동주원이라고 제주시 화북리에 무슨 샘이 있어. 그 물귀신이 발을 가는 노인의 도움으로 쇠길마 밑에 있는 물그릇 속에 숨은 거지. 고종달은 물혈을 뜨며 자주 쫓아 오는데, 거기 와서 보니 어떤 사람이 발을 갈고 있어. 발을 가는데 쇠길마 아래 점심 바구니를 놓고 우장을 덮어두고 발을 가는데, 고종달이 문서(지리서)에는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문서가 있던 말이야. 그런 문서가 있으니 그 물혈도 뜨야 한다 하여 와서 보니,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데를 해독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 발을 가는 노인 보고, “거 미안하지마는 여기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데가 있소?” 하고 물으니, “내 몇 대 하르방 때부터 여기 수십년 살지마는 그런 물은 들어 보질 못한 것 같습다.”고 하니, “에이, 이 문서 헛문서로구나.”하며 찢어버렸지. 그래서 서귀포 저쪽으론 생수가 나는 데가 많고, 동쪽으론 생수가 없어. 고종달이는 원래 호종단이지. 그가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거 문서가 아니 되었다고 찢어 던져버렸으니 실패가 된거지요. 대륙에 나갔자 해볼 게 없거든. 중국에서 나올 때 문서가 있어야 할 건데. 그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고려에 귀화한거지. 고종달은 차귀섬으로 돌아가다 풍랑을 만나 죽었다고 하지.¹²⁾

이와 같은 술한 이야기를 남긴 고종달이가 바로 호종단이다. 호종단은 제주도 안의 물혈을 거의 끊고는 귀로에 올랐다. 그가 탄 배가 송나라를 향해 한림읍 앞 바다에 이르렀을 때이다. 물혈을 끊는 것을 보고 참다 못한 광양당신이 한 마리의 매로 변하여 뒤쫓아 날아갔다. 매는 호종단이 탄 배 위를 날쌔게 한바퀴 돌았다.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쳐 천지를 분별 못하더니, 호종단이 탄 배는 비양도 바위 틈에 산산조각이 되어 갈아앉고, 호종단은 곱게 수장이 되고 말았다.¹³⁾

12) 김영돈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870~74.

13) 제주도 문화공보부 편, 《濟州道傳說誌》, p.50.

1. 斷穴 모티브

胡宗旦(고종달)이 물혈 끊는 이야기는 중국이 王侯之地로 여겼던 本島의 植民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土地調査 및 人文環境에 대한 정탐을 위하여 使者를 보냈던 이야기로, 最初의 民俗調査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風水地理나 圖讖思想은 중국으로부터 新羅 말기에 들어와 유행하던 사상으로 國際政勢가 어지러울 때마다 이 思想은 성행하였다.

胡宗旦이 제주도에 入島한 시기는 說話에서는 宋나라 또는 元나라 때로 나타난다. 또 記錄(高麗史)을 보면, 胡宗旦은 高麗睿宗 때 歸化한 宋나라의 福州 사람으로 송나라에서 太學에 들어가 上舍生이 되었다가 뒤에 浙江省을 거쳐 商船을 타고 들어왔다. 睿宗의 극진한 사랑과 두터운 대접을 받았으며, 左右衛錄事에 보직되었다가 權直翰林院을 거쳐 寶文閣待制가 되었다. 총명하고 넓게 학문에 밝고, 겸하여 雜藝에도 통하여 魔術같은 技藝에도 능하였다.¹⁴⁾ 뒤에 仁宗 때는 起居舍人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왕의 명령을 받아 濟州島를 정탐하러 온 胡宗旦은 風水地理에 능통한 術士로서 ‘물혈’을 끊어 王侯之地인 濟州를 ‘왕도 범도 못 나는 섬’으로 만들어 自然과 人物의 荒廢化를 시도한 中國(또는 高麗)의 植民化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한 下手人으로 濟州人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며,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다.

風水에서 山은 陰이요, 물은 陽이다. 산은 靜이요 물은 動이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물은 천치창조의 물이며, 생명의 源水로서 부정을 淨化하여 모든 것을 相生하지만, 물혈이 끊겨 물이 막히고 고여 썩으면, ‘죽은 물’로서 자연을 황폐하게 하고 인간을 병들게 한다. 대개 山은 사람의 形體와 같고, 물은 사람의 血脈과 같은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形體의 生長枯榮은 모두 血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血脈이 사람의 몸 속으로 흘러 다님에 있어서 그 도수가 순조로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실절케

14) 李弘植 편저, 《國史大事典》, 세진출판사(1981), p.1735.

되어 그 사람의 병들어 망함이 自然의 이치인 것이다.¹⁵⁾

(胡舜申, 第四 水論, 蓋山如人之形體 水如人之血脈 人有形體生長枯榮一資於血脈 血脈周流於一身之間 厥有度數順而不差則其人必康且強 逆而失節則其人必病且亡矣 此自然之理)

이 말은 인체의 健康 與否가 血脈에 존재하는데, 이 血脈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순조로우면 건강하고, 반대로 불규칙적이면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山水도 이와 같이 水와 山이 합쳐지지 않으면 山의 吉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혈'을 끊는 것은 사람의 血脈이 막히면 병이 드는 것처럼 自然을 荒廢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斷穴을 통하여 王侯之地에 인물이 나는 것을 막고, 自然과 人事를 荒廢하게 하고, 植民地 濟州를 愚民化하기 위하여, 山水와 風物을 遊覽하면서 토지의 용도를 把握하는 것이 胡宗杲의 임무였던 것이다.

2. 牧馬生産地와 馬穴

고종달型 說話에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地理書를 보며, 穴을 찾는 고종달(胡宗杲)을 도와 준 慶州 金氏가 고종달이 도움으로 祖上의 先墓를 잘 쓰게 되었고, 또 고종달이 비밀로 하려던 '馬穴'을 알아 삼시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濟州島에 '물혈'을 끊으러 온 고종달(胡宗杲)이 한라산을 돌아다니며 '馬穴'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설화에 의하면, 고종달은 宋代 또는 元代의 사람이라고 한다. 문헌(高麗史)에 의하면, 胡宗杲은 송나라 사람이며, 高麗에 歸化한 사람이다. 특히 濟州島는 거의 100년 동안 몽고(元)의 支配를 받았다. 이때 濟州島는 몽고가 일본정벌을 위한 군사 전략상의 要地(병참기지)로, 牧馬場 설치의 最適地로 삼아 침략의 발판이 되었던 곳이다.¹⁶⁾ 그러므로 설화는 宋代의 胡宗杲의 斷穴에 元代의 牧馬場 설치 이야기까지 첨가하고 있는 것이다.

15) 최창조 :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1984), p.116.

16) 金泰能 : 《濟州島史論攷》, 세기문화사, 1982, pp.34~37.

‘馬穴을 찾는 이야기’는 濟州島가 예로부터 木馬產地임과 牧馬場이 생기고 말을 목축하게 된 來歷을 설명하며, 아울러 胡宗杲이 내륙에서 온 정탐자로서 馬場으로서의 立地的 條件이 좋은 곳을 찾아다녔고 그러한 곳을 조사하여 地圖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胡宗杲의 調査는 민속·지리적 조사라 할 수 있다.

胡宗杲(고종달)은 제주 전 지역을 두루 踏査하고, 漢擎山이 牧馬場으로서의 최적지임을 인식하였고, 그 비밀을 자기에게 협조하는 慶州 金氏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다. 慶州 金氏는 그로부터 말을 길러 큰 부자가 되었으며, 牧畜을 가업으로 계승하였고, 그 결과 朝鮮朝에 와서는 국가에 말을 進上한 功勞로 監牧官¹⁷⁾이 되었고, 그 벼슬을 세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胡宗杲(고종달)은 風水地理에 능통한 術士로서 제국의 식민화를 위한 무서운 陰謀를 가지고 入島하였지만, 그를 돕고 또 그의 비밀을 알아 내어 立身하거나 得을 본 島民들도 있었던 것이다.

3. 水神救援神話의 意味

설화에 나타나는 ‘고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은 쇠길마 밑에 감추어 둔 물그릇이다. 이 話素는 위기에서 발휘되는 민중의 지혜를 象徵하는 이야기다.

곳을 할 때, 祭場을 淨化하기 위하여 하는 <새드림>에 나타나는 辭說을 보면, “얕은 물에는 새 아니 놀고, 깊은 물에는 龍 아니 놀네까.” 하는 사실이 보이는데, 보는 바와 같이 濟州島에는 깊은 물이나 生水가 나는 곳, ‘물혈’이 있는 곳에는 龍에 얽힌 설화가 전해 온다.

龍은 水神, 물의 守護神이다. 生水說話는 대개 물을 지키는 守護神이 물혈을 끊으러 온 고종달(胡宗杲)에 쫓겨 다니다가 발을 가는 농부의 쇠길마 밑에 있는 물그릇에 숨어 위기를 넘기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물혈이 끊기지 않고 남아 있어 生水가 난다는 것이다.

17) 地方的 牧場 일을 맡아보는 종6품의 官職(法制處, 《古法典用語集》, p.18. 參照.

꼬부랑 행긴가 무싱겨, 옛날 고종달이라고 잊지안후우파. 그것이 고종달이 아니고 胡宗旦입쥬. 그 호종단이가 대국사름인디 거기서 듣기를 제주도엔 가민 제주도엔 멍인(名人)이 많다는 말을 들어십쥬.

그렇게 멍인이 만하냐고, 멍인이 많다고 하니 제주도 강 본다고 해십쥬. 제주도로 완 종달리로 내려십쥬. 종달리로 내려시니까, 처음에 만난 사름고라는 아으를 만났든 누겔 만났든

“이거 어디냐?”고 물으난,

“종달리요, 종달리우다.”

아으고라 물어도 종달리, 여인네고라 물어도 종달리, 늙은이안티 물어도 종달리, 젊은이안티 물어 봐도 물으른 다들 종달리엔 하는거라.

하, 제주도에 멍인덜이 많다더니 벌써 내 일름이 ‘종달’이니까, 이거 나보고 종달리라고 하는거라고 생각하엿쥬. 이제 그 말을 들어가지고 산우엘 올라가지고 받고 온 맹령을 다스리고 하다가, 이제 혼 물줄기를 끊언 오다가, 이던 동드레 산물이 엿수다.

이제 이 ㅁ실 수소못덜 와십쥬. 수소못덜 오라그네 그 책을 보니까, 이 수소못이엔 혼 물이 잇는디, 물장을까지 써 닐어. 행기에 물 하나만 다 보가지고. 벌써 그 문셴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라 써졌거든.

아 밧디 강 밧 가는 사름고라 들으난 벌써 누게 완 머쳐. 그 물구신이와 가지고 아무안티도 그런 디 없다고 글으라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벌써 문셴(文書)은 이제 고쳐지니까 밧 가는 사름고라 들으니 여기 당추 그런거 없다구.

여기 무정생 아래 꼬부랑나무 속에 행기물이란 거, 나 그런 거 어시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 胡宗旦이가 이놈의 문서 허튼 문서라고. ‘허멍이문서’라고 해서, 이제 또 이 아래 ‘허멍이’엔 혼물이 잇어났수다.

계서 그디 와서 술아부니까 ‘허멍이문서’라고 해십쥬. 옛날에 거기도 생수가 잇어나싱고라 그 물에 와서 문서를 태와부리니까 ‘허멍이물’이엔 해십쥬. 수소못은 이름난 못입주계.¹⁸⁾

4. 胡宗旦說話와 堂神의 復讐

기세등등하게 지리서를 들고 와서, 濟州島의 ‘물혈’을 끊던 고종달이(胡宗旦)도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을 찾지 못하여, 결국 지리서를 찢어버리고

18) 濟州市 寧坪上洞 김병렬(여·74세) 할머니의 이야기.

달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窮地에 몰린다. 이는 民衆의 지혜가 물의 守護神을 살린 이야기라면, 제주땅을 지키는 漢拏山の 護國神이며 本郷堂神인 廣壤堂의 神이 매로 化信하여 달아나는 胡宗旦의 배를 비양도 앞바다에서 파선 시켜 죽이는 이야기는 外來神 胡宗旦과 土着神인 本郷堂神의 싸움에서 本郷堂神이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제주인들의 내 땅을 지키는 護國의 意志와 反帝思想을 설화 속에 표시하는 것이다.

祠廟…廣壤堂 濟州南漢拏護國神祠 諺傳漢拏山之弟 生有聖德歿爲神 高麗時宋胡宗朝來 歷此土浮海而返 神化爲鷹 飛上橋頭 俄而北風 大吹擊碎 宗朝之舟 没于西境飛揚島巖石間 朝廷褒其靈 異賜之食邑 封爲廣壤王 歲降香幣以祭 本朝令本邑致祭 按胡宗朝來仕 高麗官至起居舍人 以卒則來歷 溺舟之說恐不可信¹⁹⁾

여기서 다시 風水信仰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風水에서 穴이라 하는 것은 人體의 經穴과 마찬가지로, 風水의 주된 目的일吉한 穴을 골라 生氣의 응결조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風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穴이다. 또 穴을 잃게 되면 <毫釐之差 禍福千里>의 결과가 되어, 결국 발복하는 바가 없게 되든지 혹은 오히려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까닭에 占穴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²⁰⁾

廣壤堂神은 山神이다. 산은 본래 그 성질이 靜이며 물의 性質은 動이다. 그러므로 그 本性으로 말하면 산은 음이고 물은 양이다. 山水를 인체에 비유하면,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산은 形體와 같고 물은 血脈과 같다. 이 철맥이 순조롭게 돌아야 건강하고, 조화를 잃으면 질병은 얻는다. 山水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²¹⁾ 결국 斷穴은 外來神(=外勢)이 來侵하여 漢拏山の 精氣를 끊은 것이며, 廣壤堂神(=土着神)의 공격과 勝利는 '제주 땅을 지키는 土主官'으로써 來侵(=災殃)을 막아 山水를 지켰다는 것이다.

19) 新東國輿地僧覽(집문당, 1981) 卷之三十八, 濟州牧條 尚陰祀, p.662.

20) 村山智順(崔吉城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1990), pp.97~98.

21) 村山智順, 앞의 책, p.81.

- [(+) 廣壤堂神(耽羅護國神) - 風水神(=山神) - 島民守護神(土着神)]
 [(-) 胡宗旦(外來侵略神) - 風水神(=斷穴神) - 外地派遣神(外來神)]

Ⅲ. 濟州島의 新興宗教 - 찬물교

1. 찬물요법

병을 고치는 淨化水는 <새드림>의 辭說에 나타나는 ‘동해바다 銀河 봉천수’다. 심방이 患者를 앉혀 놓고 ‘새드림’을 하거나 ‘넋들임’을 할 때, 사발에 떠서 환자의 몸에 뿜어, ‘不淨을 가시는 물’은 냉수 한사발이지만, ‘동해바다 은하 봉천수’라고 하고 있다.

이는 냉수 한사발로 병을 고친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물에 의한 治病은 巫俗信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濟州島에서 맨 처음 創建된 <찬물교> 계통의 新興宗教에 두루 통용되는 <찬물요법>이다. 이때의 물은 淨-不淨, 病-健康을 ‘굽 가르는 물’로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찬물교>의 <찬물요법>이 巫俗信仰의 治病原理를 그대로 傳受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수를 마시고 生食을 함으로써 血脈을 맑게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 <찬물요법>의 이치다. 찬물을 이용하여 불치의 병을 고치는 <찬물요법>의 新興宗教는 소섬(牛島) 사람 奉南先師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러면 奉南先師가 말하는 물법수도의 원리를 알아보자.

奉南先師에 의하면 물은 본질적으로 일체 生命의 근원이며, 人間心性의 도덕적 原理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가진 물법의 효용은 첫째 肉身의 病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마음의 티끌을 벗어 無量光明을 얻어 萬化歸一의 심성을 끼쳐 도의 진리에 입각하여 道通을 얻는 최대의 목적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법의 制度原理는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바른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모든 病苦의 原因이 되는 心身의 汚染은 이 물로써만 씻을 수 있으며, 心火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물은 모든 生命의 原質이며, 原動力이기 때문에 水氣의 缺如로 心身에 病苦를 일으킨 자를 蘇生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찬물교> 계통의 敎派는 봉남이 죽자 그의 弟子들이 제각기 교를 세워 <봉남교> <옹화사> <아미타불교> <찬물교> <적선교> <성덕교> <태화교> <삼법수도교화원> <천지대안교> 등 많은 新興宗教를 派生시켰다.

奉南先師의 물법치료를 받아 질병을 치료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夫景順이 만든 <천지대안교>의 修道方法을 보면, <물법 修道>라고 하여 찬물만 먹고, 단식하면서 呪文과 祈禱文 등을 외우는 것이다. 단식기간은 보통 일주일로 하는데 능력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기도 한다. 가장 오래 斷食水道한 사람은 現敎主 김태순의 百日斷食이라 한다. 물법치료의 방법은 사람과 때에 따라 다른 점도 있겠지만 대개는 하루에 찬물 다섯 그릇을 마시고 매일 찬물로 목욕을 한다. 身病을 治療하기 위하여 이 물법수도를 하게 되는데, 이 물법수도는 심신의 죄악을 제거시키고 通靈의 경지에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해서 <通靈工夫>라고도 한다.²²⁾

수양을 할 때는 찬물도 먹고, 생쌀도 먹고 합니까?

예, 찬물을 약수라 해서 물을 받아다 그릇에 놓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다가 가운데 一字를 긋고, 천신에서 약을 타준다 하여 먹습니다. 약은 天神에서 물을 주는거라 마씀²³⁾

2. 鍼灸療法

風水地理에는 ‘물혈’이 끊기면 자연이 병드는 것과 같이, 인체의 모든 病은 ‘혈맥’이 막혀 일어나는 것이라 했다.

脈은 인체의 生氣가 흐르는 根源 通路이다. 脈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근육이 튼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虛花에 지나지 않는다. 脈이 통해야 살아있는 身體인 것이다. 그렇다면 脈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할인가. 脈이란 사람의 몸에서 피(血)의 理致가 나뉘어 길으로 몸 밖에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 脈을 보

22)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 《溫平里誌》, pp.242~250.

23) 온평리 강영화(여·72세)

아 사람의 건강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다.²⁴⁾

또 風水의 穴은 인체의 經穴에 비유되는데, 經穴이란 經路에 존재하는 孔穴이란 뜻으로, 經穴의 出, 注, 過, 行, 入한 곳의 모든 점을 孔穴이라 한다.

鍼灸는 모두 이 孔穴의 부위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孔穴의 부위를 잘 알아 臟腑와 신체의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病源과 經穴孔穴과의 鍼灸 관계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는 것이 침뜸술의 要訣이 된다.²⁵⁾

奉南先師가 그의 수도과정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按捺과 鍼灸로 환자를 구하는 方術이었다 하며, 이는 治病이 그의 修道의 첫 목적이었기 때문이다.²⁶⁾

이와 같이 물법제도와 按捺鍼灸의 치병원리와 儒·佛·仙 三法修道를 통합한 新興宗教가 濟州島에 성행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제주도에는 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海女가 많고, 해녀의 직업병으로는 위병과 두통 등이 많다. 그리고 해촌의 마을은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다. 그리고 奉南先師의 물법치료는 많은 해녀의 직업병을 고쳤던 사례가 많았다. 그러면 奉南先師의 출생과 찬물교의 연기설화를 통하여, 물법교화의 원리를 살펴 보자.

奉南先師는 1897년 4월 11일 북제주군 구좌읍 연평리(牛島)에서 부친 김기호와 모친 탐라 양씨의 삼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모친께서 奉南先師님을 잉태할 때, 전혀 잉태된 것도 모르고, 해산할 때도 전혀 고통을 모르고 해산하였는데, 출생하여 네살 때까지 울음소리가 없고, 말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14세 때 병이 들어 의약과 침구의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귀신들린 병이라 해서 심방을 불러 굿을 하여도 효력이 전혀 없고, 점점 몸이 쇠진하여 사경에 이르렀다. 先師께서 담담하여 바닷가 높은 비봉에 올라 투신 자살을 하려는데, 어디선가 先師의 이름을 부르기에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고 “억조창생을 어찌 하려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 소리를 듣고 先師는 “天에 무슨 因緣이 있나보다.” 생각하고 자살을 단념하였다.

濟州에서 도를 수행하던 先師는 病으로 家産을 탕진하고 부산으로 출륙

24)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1990), p.182.

25) 최창조, 《韓國의 風水思想》, 민음사(1984), p.38.

26) 金錦夏, 《三法修道眞理》, 三法修道敎化院(1985), p.25.

하였는데,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표류하는 것을 보고, “이 배는 나와 같이 어디가 고장이 나서 가치를 못하나?” 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고장난 데는 없고, 파이프를 뜯어보니 파이프에 먼지가 꼭 차 있었다. 먼지를 쏘어내니 배가 정상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先師님은 그 때 문득 깨달았다. 사람도 이 배와 같이 오장육부가 다 상한 곳이 없는데 병명도 없이 이물어가는 것은 혈관이 무엇으로 꼭 막혀있는 탓이다. 이리하여 先師님은 修道에 열중하여 천신단고의 노력 끝에 1937년 정월 15일 문득 천상으로부터 <물법>을 받고 뱃속에서 피가 맺힌 고깃덩이 하나를 토함으로써 15세 후 그때까지 괴롭히던 지병이 완전히 물러가고 물법을 터득하여 난치의 병도 先師님의 道力과 물법으로 치료하니 世人이 경탄하여 <물법先師>라 칭하였다. 이리하여 先師는 물의 原理를 체계화하여 신앙의 基本原理로 삼았으니,

- | | |
|--------------|-------------------|
| ① 創造의 原理 | ② 生命의 原理 |
| ③ 物理的 原理 | ④ 治病의 原理 |
| ⑤ 淨身法의 原理 | ⑥ 雜鬼를 물리칠 逐魔法의 原理 |
| ⑦ 心水法의 原理 | ⑧ 道通의 原理 |
| ⑨ 儒佛仙 三合의 原理 | ⑩ 運道의 原理 |

가 그것이다.²⁷⁾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濟州島에서 興起한 新興宗教는 ‘물법 제도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바른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모든 病苦의 原因이 되는 心身의 汚染을 이 물로써만 씻을 수 있으며 心火를 소멸한다’는 것을 治病의 근거로 삼고 <찬물요법>을 내세웠으며, ‘먼지가 꼭 찬 기관처럼 오염된 혈관을 淨化하는 것’을 치병의 원리로 <鍼灸療法>을 마련, 많은 해녀들을 치료해 줌으로써 신흥종교로서 그 입지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는 風水說에서 陰陽의 原理에 의하여 山水를 사람의 身體와 血脈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이치와 유사한 것으로 巫俗信仰에 나타나는 ‘물에 의한 淨化’로서의 治病原理를 <물법교화>를 信仰原理로 삼는 <찬물요법>의 종교로 발전시켰으며, 거기에 鍼術을 통하여 인체의 풍수원리를 토대로 병을 고치는 按

27) 金錦夏, 앞의 책 참조.

擦·鍼灸法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물법으로 병을 고치는 <찬물교(清水敎)>가 특히 <용화사> <타불교> <천지대안교>의 형태로 존속되고 있는 것은 風水나 鍼術과 함께 島民의 巫俗의 世界觀의 影響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마무리

지금까지 巫俗信仰이나 風水說話, 그리고 新興宗教 속에 나타난 물의 의미를 民俗信仰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앞에서 濟州島民은 물을 찾아 마을을 설촌하고, 목장터를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꺼냈던 바와 같이, 물을 중심으로 集村을 이루어 살고 있는 島民에게 있어서 물은 중요한 생활원이었다.

口傳說話에 나타난 물의 상징적 의미만으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리를 해 보면, 天地創造神話를 통하여 도민의 우주관에는 음양의 합수에 의해 우주의 混沌은 구분되고 宇宙의 秩序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물은 “굽 가르는 물”로서 우주창조의 원리를 나타내는 ‘創造의 源水’이다. 그리고 <새드림>에서 祭場의 不淨을 씻어내고 患者의 새-邪·不淨·病·煞·恨·死-를 쫓아내는 물은 治病의 原理가 된 ‘淨化의 물’, ‘生命의 물’이었다.

그리고 당본풀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땅 가르고 물 가르는’ ‘굽 가르는 물’, 즉 ‘境界·區劃의 물’이 있었다. 또 고종달(胡宗旦)型 說話에서는 ‘물혈’을 끊은 외세 침략의 역사와 함께 이에 저항한 민중의 지혜와 척박한 땅에 사는 祖上들이 마을 입지에 알맞은 생수터에 聖地로서 本鄉堂을 마련하고 堂神을 모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不淨과 煞을 막으며 ‘물혈’을 지켜 온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물법신앙>은 島民의 巫俗信仰이 신흥종교로 융화 발전하여 온 것이며, 물에 의한 ‘治病의 原理’로 敎化하고 있다는 것이었다.